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5권 제5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19.15.05.047 2019, Vol. 15, No. 5, pp. 47-68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박윤정[1] 최미경[2]

Yun jeong Park[1] Mi-kyung Choi [2]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mother'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comprised of 315 young children who attend a kindergarten or day care center and their mothers from Seoul, Inchon, and Gyeonggi-do Province.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emperament,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nbach's α,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young children's regularity/adapt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nse of competence as a parent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Young children's regularity/adaptabil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issatisfaction as a parent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instability/negativity. Sense of competence as a par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young children's emotional instability/negativity. In addition, it was further found that the mother'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ended to play a perfectly/partially mediating role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respectively.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d tha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lays a crucial role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key words temperamen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 본 논문은 2014년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조우경 아동상담센터
놀이치료사

[2] 교신저자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 dmkchoi@duksung.ac.kr)

Ⅰ. 서 론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울, 불안, 게임중독, 학교폭력, 왕따 등 정서 ·

행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정서·행동 발달 특성검사를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서울경제, 2012). 또한 보건복지부도 영유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하나로 광명시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정서평가검사(ITSEA)를 실시했는데, 광명시의 경우 192명중 39.06%의 영유아가, 마포구의 경우 195명중 28.78%의 영유아가 우울, 위축, 또래 관계의 어려움, 주의력 결핍 등 사회・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경향신문, 2014). 어린 시기의 사회, 정서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이후 성장기의 내, 외현적 문제행동의 발생과 관련성이 크므로(Fettig, 2015), 아동기의 정서, 사회성 발달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는 학술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 인식 및 표현과 관계되며 정서적 표현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조절은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므로(Cole, Martin, & Dennis, 2004) 그 중요성이 크다. 정서조절은 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김유미, 2005), 이 시기 정서조절 발달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아기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었으며, 정서·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고(Fettig, 2015), 폭력과 일탈 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냈다(Goodman, Brogan, Lynch, & Fielding, 1993).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적게 느꼈으며(Gottman & Katz, 1989), 또래유능성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도 높게 나타났다(장미희, 이지연, 2011). 이처럼 유아기에 발달된 정서조절능력은 성장기의 심리・정서적 건강의 기초가 되고, 사회적 기술로 발달하여 이후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서혜린, 이영, 2008), 유아기의 정서적 표현 및 조절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개인의 내적, 환경적 변인이 연구되었다. 개인 내적 변인들로는 성별, 연령, 기질 등의 변인이 주목받았는데, 특히 유아의 기질은 여러 발달영역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연희, 2014; 김보영, 2012; 김현나, 이경님, 2008; 박석규, 이은희, 2011; 배미경, 2012; 배주희, 2011; 최지영, 김미애, 2010; 홍계옥, 이상덕, 2009).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유전적 특성의 하나로, 성장 후 성격의 기본이 되는 기질은(Buss & Plomin, 1975) 개인의 정서 및 행동 발달과 밀접히 관련된다(Thomas & Chess, 1977). 실제로 분노, 두려움, 슬픔의 표현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높은 기질을 지닌 유아는 화 폭발과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나타냈고(권연희, 2003), 낮은 정서조절능력과 관계가 깊었다(김정은, 2015; 정보라, 2017). 또한 수줍음이 높은 기질을 지닌 유아는 정서조절능력이 낮았고,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했으며(김지윤, 2007), 활동성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정서억제, 대처하기 등의 정서조절이 낮게 나타났다(김현주, 2009; 채경진, 유연옥, 2015). 이와 같이 기질은 몇몇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기질을 주로 쉬운 혹은 까다로운 기질로 구분하여 연구해 오다가 점차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된 구성요인으로 보고 기질과 영유아의 발달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박재윤, 2013; 신혜진, 신나리, 2014)이 보고되었다. 개정판 유아 기질 척도에서는 기질을 적응적, 활동적, 규칙적 기질로 그 차원을 나누었고 최근 영유아의 발달과 기질차원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 차원을 구분한 개정판 유아

기질 척도에 근거해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또래, 교육환경 변인들 가운데, 유아가 생후 처음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은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유아가 태어나서 주 양육자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까이 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영유아는 어머니를 통해 정서적으로 사회화 되어가며(Dunn & Brown, 1994),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장려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적절하게 표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법을 학습시킨다(Denham, 1993). 따라서 생애 초기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부모의 직접적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변인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믿음인 양육효능감(Teti & Gelfand, 1991)은 인지와 행동을 매개해 주는 요소로(Bandura, 1989)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utrona & Troutman, 1986;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써(김미정, 이경님, 2011; 이주연, 2009; 최형성, 2006),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같은 정서발달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고(김혜순, 2009; 조미숙, 2011; 조부월, 2012),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 및 양육방법을 확신할수록 유아의 정서가 안정적으로 발달했다(이승은, 서현, 2007). 이밖에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뿐 아니라 자기조절능력과도 관계가 있으며(김혜원, 2018; 이화선, 2016), 타인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미리, 2011). 그러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조사한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양육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인지적,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의 정도는 실제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선행 결정 요인으로서 양육행동 이전에 어머니가 지닌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적 특성인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Thomas와 Chess(1977)는 개인의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으며, 기질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심리나 양육행동과 같은 특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자녀의 특성 역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이나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문혁준, 2005; Planalp, Van Hulle, & Goldsmith, 2019). 실제로 Teti와 Gelfand(1991)의 보고에 의하면, 유아의 기질이 순할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고, 짜증을 잘 내고 소란스러운 기질을 지닌 유아의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낮았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순한 기질을 지닌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높았고, 반대로 유아의 기질이 까다로우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낮았다(최형성, 2005). 또한 유아의 기질이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규칙적일수록(이윤진, 2007), 부정적 정서성이 낮았고,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높았다(문혁준, 2005). 이상의 연구들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적응적, 활동적, 규칙적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 기질의 여러 차

원에 근거하여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조절능력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토대로 본다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기질은 생후 초기 영아의 개인적 특성으로 나타나며 유아기에 접어들어 양육자의 양육에 영향을 받아 그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며(Thomas & Chess, 1977) 유아의 발달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물며,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유아의 기질과 발달적 결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몇몇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기질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는 연구(박혜원, 2012) 및 영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박예랑, 2017), 그리고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는 연구(최빛나, 2013)가 보고되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이 아버지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유지현, 이경님, 2017)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의 경우 어떠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므로(박재윤, 2013; 박지숙, 2008; 임희수, 2001), 자극에 대한 유아의 반응에 근거하여 여러 하위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기질의 다양한 차원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또한 정서조절능력도 유아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분노유발 상황에서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 행동 발달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의 기질을 적응적, 활동적, 규칙적 기질로 구분하여 유아 기질 및 긍정적, 부정적 정서조절능력 사이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조사했다. 본 연구결과는 타고난 유아의 여러 기질 차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유아 양육이나 교육 시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아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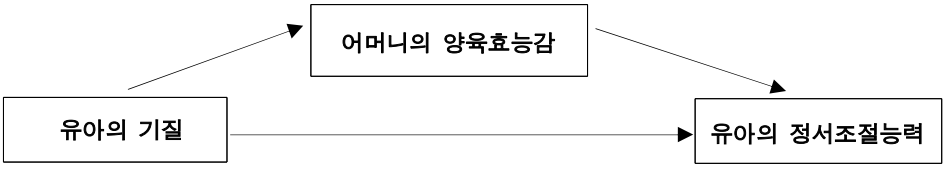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인천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118명), 4세(104명), 5세(93명)의 유아 315명과 그들의 어머니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으로 만 3～5세 유아를 선정한 이유는 유아의 정서발달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만 3~5세의 시기가 정서표현,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이 점차 정교해지고 급격히 발달하는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안라리, 2005; 유경, 민경환, 2003; 이소은, 2011; 최은숙, 2013).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유아의 성 및 연령별 구성은 남아 165명(52.4), 여아는 150명(47.6)이었으며, 만 5세가 93명(29.5), 만4세가 104명(33.0), 만 3세가 118명(37.5)으로 만 3세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아의 출생순위의 경우는 둘째가 4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첫째가 32.1%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외동이가 18.7%, 셋째 이상이 되는 유아는 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모의 연령은 부, 모 모두 만 35～39세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상이 61%에 달했다.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44.8%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이 23.5%, 전문대 졸업이 22.8%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315)

변인	빈도	%		빈도	%
아동의 성별			아동의 출생순위		
남아	165	(52.4)	외동이	59	(18.7)
여아	150	(47.6)	첫째	101	(32.1)
아동의 연령			둘째	133	(42.2)
만 5세	93	(29.5)	셋째 이상	22	(7.0)
만 4세	104	(33.0)			
만 3세	118	(37.5)			
아버지 연령			어머니연령		
만 25～29세	1	(0.3)	만 25～29세	9	(2.9)
만 30～34세	37	(11.7)	만 30～34세	79	(25.1)
만 35～39세	125	(39.7)	만 35～39세	141	(44.8)
만 40～44세	122	(38.7)	만 40～44세	77	(24.4)
만 45～49세	25	(7.9)	만 45～49세	8	(2.5)
만 50세 이상	4	(1.3)	만 50세 이상	1	(0.3)
아버지 없음	1	(0.3)			

표 1. 계속

변인	빈도	%		빈도	%
아버지 교육정도			어머니 교육정도		
중학교 중퇴, 졸업	2	(0.6)	중학교 중퇴, 졸업	1	(0.3)
고등학교 중퇴, 졸업	50	(15.9)	고등학교 중퇴, 졸업	74	(23.5)
전문대 졸업(2년), 대학교중퇴	70	(22.2)	전문대 졸업(2년), 대학교중퇴	72	(22.9)
대학교 졸업	156	(49.5)	대학교 졸업	141	(44.8)
대학교 이상	36	(11.4)	대학교 이상	27	(8.6)
아버지 없음	1	(0.3)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무직	1	(0.3)	무직, 가정주부	193	(61.3)
노동직	2	(0.6)	노동직	3	(1.0)
생산직 감독, 서비스직	17	(5.4)	생산직 감독, 서비스직	5	(1.6)
자영업, 일반판매직	78	(24.8)	자영업, 일반판매직	15	(4.8)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19	(6.0)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17	(5.4)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122	(38.7)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45	(14.3)
전문직	43	(13.7)	전문직	20	(6.3)
기업주, 정부고위관리, 기업체간부	9	(2.9)	기업주, 정부고위관리, 기업체간부	1	(0.3)
기타	23	(7.3)	기타	16	(5.1)
아버지없음	1	(0.3)			
가정의 월평균총수입					
200만원 미만	13	(4.1)	350~400만원 미만	38	(12.1)
200~250만원 미만	19	(6.0)	400~450만원 미만	50	(15.9)
250~300만원 미만	33	(10.5)	450~500만원 미만	50	(15.9)
300~350만원 미만	47	(14.9)	500만원 이상	65	(20.6)

2. 연구도구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Shields와 Cicchetti(1997)의 도구인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김지윤(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유아와 조절이 어려운 유아 간의 변별을 목적으로 한다. ERC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정서조절이 유연하고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정서통제(9문항)와 불안정성/부정성(15문항)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불안정성/부

정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의 높고 낮은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4점 Likert식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정서통제의 문항은 '명랑한 아이이다.', '만족감을 지연할 수 있다.' 등이고, 불안정성/부정성의 문항은 '쉽게 좌절한다.', '어른에게 칭얼거리거나 들러붙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정서통제가 .71, 불안정성/부정성이 .86, 이었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알아보고자 유아용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DOTS-R;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Windle & Lerner, 1986)를 서주현(2009)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OTS-R은 Thomas와 Chess(1977)의 뉴욕장기종단연구(NYLS)에서 보고된 기질의 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일상습관, 활동수준-일반과 수면, 규칙성-수면, 접근-철회, 섭식, 유연-경직, 주의집중과 주의분산, 기분의 10개 하위요인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주현(2009)은 각각의 하위 요인에서 3문항씩을 선별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적응적 기질은 9문항으로, 활동성 기질은 12문항으로, 규칙적 기질은 9문항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방식으로 1점인 '거의 그렇지 않다' 에서 4점인 '매우 그렇다' 로 평정하는 척도이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적응적 기질은 '우리 아이는 자주 웃는다.' 활동성 기질은 '우리 아이는 잠자면서 많이 움직인다.', 규칙적 기질은 '우리 아이는 집이 아닌 곳에 가 있을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등이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값은 적응적 기질이 .76, 활동성 기질이 .71, 규칙적 기질이 .84 였다.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도구인 PSOC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김민정(2008)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인 요인의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인 요인의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4점 Likert식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나는 내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등이고,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인지, 나는 부모로서 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값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77,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74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

치원 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했다. 원장과 담임교사가 어머니들에게 직접 연구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 후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보고용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유아를 통해 회수 하였다. 총 5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36부를 회수하였으나(회수율 59%), 조사 대상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21부를 제외하고 315의 자료를 본 분석에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했다. 셋째, 각 연구변인에서 성차 및 연령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분석으로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다섯째,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Ⅲ.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유아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아의 연령별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사이의 관계성을 조사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먼저, 활동성 기질을 제외하고 유아의 다른 기질 하위요인은 정서통제와 불안정성/부정성에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먼저, 유아의 기질과 정서통제와의 관계를 보면, 유아의 적응적 기질(r = .51, p < .001)과 규칙적 기질(r = .25, p < .001)은 정서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정서통제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를 보면, 유아의 적응적 기질(r = -.34, p < .001)과 규칙적 기질(r = -.14, p < .05)은 불안정성/부정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N = 315)

	정서조절능력	
	정서통제	불안정성/부정성
유아의 기질		
적응적 기질	.51***	-.34***
활동성 기질	-.11	.11
규칙적 기질	.25***	-.14*

*p < .05, ***p < .001.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3 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각 하위요인들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먼저,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통제 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유아의 정서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r = .40, p < .001),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아의 정서통제와 부적 상관관계를(r = -.32, p < .001)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통제는 높고,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통제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를 보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과 부적 상관관계를(r = -.19, p < .01),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과 정적 상관관계를(r = .46, p < .001)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은 낮고,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은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N = 315)

	정서조절능력	
	정서통제	불안정성/부정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모로서의 효능감	.40***	-.19**
부모로서의 불만족감	-.32***	.46***

**p < .01, ***p < .001.

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유아의 기질과 부모로서의 효능감 간의 관계를 보면, 적응적 기질(r =

.25, p < .001), 규칙적 기질(r = .38, p < .001)은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활동성 기질은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r = -.28, p < .001)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규칙적일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높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불만족감과의 관계를 보면, 적응적 기질(r = -.35, p < .001), 규칙적 기질(r = -.21, p < .001)은 부적 상관관계를, 활동성기질(r = .13, p < .05)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규칙적일수록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N = 31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모로서의 효능감	부모로서의 불만족감
유아의 기질		
적응적 기질	.25***	-.35***
활동성 기질	-.28***	.13*
규칙적 기질	.38***	-.21***

*p < .05, ***p < .001.

5.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의 접근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의 제안에 의하면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각각의 변인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측정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 기본조건에 충족하는 경우는 총 8가지였다. 즉, 유아의 적응적 및 규칙적 기질 각각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부모로서의 효능감, 부모로서의 불만족감)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두 가지 하위요인(정서통제, 불안정성/부정성)간의 관계였다. 이어서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에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세 번째에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하여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유의성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난 경우,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회귀식의 기본과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하(1.04～1.17), 0.1이상(0.86～0.9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Berry & Feldman, 1985).

1) 유아의 기질(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부모로서의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 표 5 와 같이 1단계에서 규칙적 기질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38, p < .001), 2단계에서도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정서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 .25, p < .001). 3단계에서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유아의 정서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 = .36, p < .001), 유아의 규칙적 기질의 영향력은 감소했다(β = .25, p < .001 →β = .11, p < .05). 즉,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아의 규칙적 기질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통해 유아의 정서통제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Z = 4.95, p < .001).

같은 방법을 통해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조사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유아의 기질(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모로서의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N = 315)

	1단계	2단계	3단계
	부모로서의 효능감(β)	정서통제(β)	정서통제(β)
규칙적 기질	.38***	.25***	.11*
부모로서의 효능감			.36***
R^2	.14	.06	.17
$F(df)$	51.98*** (1, 313)	20.25*** (1, 313)	32.18*** (2, 312)

*p < .05, ***p < .001.

2) 유아의 기질(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매개적 역할

다음,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정서통제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 표 6 과 같이 1단계에서 규칙적 기질은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1, p < .001), 2단계에서도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정서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25, p < .001). 3단계에서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아의 정서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 = -.28, p < .001), 유아의 규칙적 기질의 영향력은 감소했다(β = .25, p < .001 → β = .19, p < .01). 즉,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규칙적 기질이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통해 유아의 정서통제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Z = 2.88, p < .001).

그러나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정서통제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매개적 역할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유아의 기질(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모로서의 불만족감) 의 매개적 역할 (N = 315)

	1단계	2단계	3단계
	부모로서의 불만족감(β)	정서통제(β)	정서통제(β)
규칙적 기질	-.21***	.25***	.19**
부모로서의 불만족감			-.28***
R^2	.04	.06	.14
$F(df)$	13.85*** (1, 313)	20.25*** (1, 313)	25.02*** (2, 312)

**p < .01, ***p < .001.

3) 유아의 기질(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부모로서의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 표 7 과 같이 1단계에서 규칙적 기질은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38, p < .001), 2단계에서도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불안정성/부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14, p < .05). 3단계에서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불안정성/부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지만(β = -.16, p < .01),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 .14, p < .001 → n. s). 즉,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규칙적 기질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통해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Z = -2.65, p < .001).

같은 방법으로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불안정성/부정성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유아의 기질(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부모로서의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N = 315)

	1단계	2단계	3단계
	부모로서의 효능감(β)	불안정성/부정성(β)	불안정성/부정성(β)
규칙적 기질	.38***	-.14*	-.08
부모로서의 효능감			-.16**
R^2	.14	.02	.04
$F(df)$	51.98*** (1, 313)	5.80* (1, 313)	6.37** (2, 312)

*p < .05, **p < .01, ***p < .001.

4) 유아의 기질(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매개적 역할

끝으로,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결과, 표 8 과 같이 1단계에서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21, p < .001), 2단계에서도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불안정성/부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14, p < .05). 3단계에서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지만(β = .45, p < .001),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 .14, p < .05 → n. s). 즉,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했다.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규칙적 기질이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통해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Z = -3.33, p < .001).

그러나,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불안정성/부정성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매개적 역할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유아의 기질(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의 매개적 역할 (N = 315)

	1단계	2단계	3단계
	부모로서의 불만족감(β)	불안정성/부정성(β)	불안정성/부정성(β)
규칙적 기질	-.21***	-.14*	-.04
부모로서의 불만족감			.45***
R^2	.04	.02	.22
$F(df)$	13.85*** (1, 313)	5.80* (1, 313)	42.89*** (2, 312)

*p < .05,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했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규칙적일수록 정서통제는 높게 나타났고, 불안정성/부정성은 낮았다. 즉, 유아가 일상에서 적응적이고, 규칙적인 행동을 보일 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반면, 분노 유발 상황에서 기분 변화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불안정성/부정성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적응성, 규칙성, 지구력은 정서통제능력과 정적 상관을, 불안정/부정적 정서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결과(박재윤, 2013; 이예원, 진미경, 2016)와 일치한다. 또한 규칙성과 적응성 기질이 정서조절 및 자기조절력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연구(김현나, 이경님, 2008; 김현주, 2009)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 외에 생리적으로 규칙적인 유아들일수록 감정조절과 충동억제를 잘 했다는 연구(김경희, 김경희, 1999)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아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일상생활에 규칙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통제는 높고, 분노유발 및 공격적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불안정성/부정성은 낮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유아의 활동성 기질은 정서통제나 불안정성/부정성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활동적인 기질은 정서통제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박재윤, 2013; 이예원, 진미경, 2016)와 일치하지만, 유아의 활동적인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은 낮고, 자신의 정서를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연구들(김현주, 2009; 박지숙, 2008; 최지현, 2001; 최빛나, 2013; 채경진, 유연옥, 2015)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측정하는 방식이나 측정 문항의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더욱 분명한 결과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통제는 높았고, 불안정성/부정성은 낮았다. 반면에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통제는 낮았고, 불안정성/부정성은 높았다. 즉, 어머니가 양육에 대해 유능감을 느끼며 잘해낼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했으며, 어머니가 양육에 어려움과 불만족감을 많이 느낄수록 유아는 분노 유발 상황 등 정서를 조절해야하는 상황에서 적절히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정서조절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박지련, 2014; 윤서희, 2014)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높았다는 연구들(남재희, 2004; 박미리, 2011; 박소영, 2006)과도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았으며(김혜순, 200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지능은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인희, 2011; 조부월, 2012; 조미숙, 2011)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을 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문혁준, 2001), 이는 유아의 정서발달을 촉진하여 유아가 정서조절을 잘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양육에 대해 좌절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끼면,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하게 되어(김유미, 2005; 안지영, 2000)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인지적 측면인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건강한 정서조절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람직한 양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우리 사회현실에서 어머니가 그러한 양육방식을 좇지 못했을 때 무능력감을 가지기보다 올바른 지식을 지니되, 어머니 스스로가 자녀 양육에 대해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는 양육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고, 규칙적일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높았고,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낮았다. 또한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낮았으며,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적응성과 규칙성 기질이 높고, 활동성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높은 반면, 유아의 적응성 기질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김민정 등, 2013)와 일치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생리적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이윤진, 2007; 정점옥, 2008)와도 유사하다. 그 외에, 영유아의 순한 기질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과,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정경화, 2013; 최형성, 2005)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규칙성을 나타내고 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양육에 대해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유아의 주의가 산만하거나 활동적인 기질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유능감이 낮고 부모로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규칙성이 낮은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킨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뜻하는 만큼, 자녀의 기질과 효율적 양육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018년에 국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가 개정되면서 교육기관에 부모의 참여가 강화된 만큼,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부터 자녀의 기질 파악 및 이해를 돕고 자녀의 기질과 조화롭게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체계적 부모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완전 혹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정서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규칙적 기질은 정서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즉, 유아의 기질이 규칙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예측성이 높아져, 양육에 대해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다시 유아의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기질이 규칙적이지 못하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며, 어머니의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지게 하며 유아의 정서통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기질은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부모의 심리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상위정서철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최빛나, 2013) 및 유아의 정서성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허용적, 간섭적, 반응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 연구(박혜원, 2012)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서조절력의 발달과정에 유아 개인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가 지닌 양육에 대한 자신감 모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은 유아의 규칙적 기질과 정서조절력의 하위요인인 불안정성/부정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은 규칙적인 기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유아의 규칙적인 기질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유능감이나 불만족감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며(김민정 등, 2013; 이윤진, 2007; 정점옥, 2008), 이는 결과적으

로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아의 기질이 규칙적일수록 어머니는 양육에서 유능감을 갖게 되며(이윤진, 2007; 정점옥, 2008), 이는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을 낮아지게 했다. 반면, 유아의 기질이 규칙적이지 못할수록 어머니는 부모로서 좌절감과 불만족감을 많이 경험했고(김민정 등, 2013), 결과적으로 유아의 불안정성/부정성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성 기질과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유지현, 이경님, 2017)와 유사하다. 또한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영아의 발달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연구(이경하, 서소정 2012) 및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정서적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행동의 매개 효과를 밝혀낸 연구(정보라, 2017)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여은진, 2009)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유능감이나 불만족감에 의해 유아의 분노나 공격성 등 정서의 불안정성/부정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결과로,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및 유능감의 중요함을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기질의 하위요인 중에서 유아의 규칙적 기질의 경우에서만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났으며, 적응적 기질은 각 변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에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의 기질이 규칙적이지 못하여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예측성이 낮아질 때, 어머니는 양육에 있어 불안감과 불만족감 느끼게 되고,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응적 기질은 환경적인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유아 자신의 특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 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시 유아의 기질 특성별 안내와 효과적 양육방식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주고, 어머니들이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족감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녀의 기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간의 기질 평가를 토대로 한 자녀의 기질 특성별 안내와 그에 따른 자녀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들이 양육에서 느끼는 불만족감의 요인을 찾아내어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머니 자신의 강점을 살려 양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부모 역할 훈련 등을 제공해 주는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의 선천적 성격특성인 기질의 하위변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기질 차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하위변인에 따른 특성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기질적 특성은 성장하여 한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므로 어린 시기의 기질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유아의 기질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즉, 양육자가 규칙적인 기질을 지닌 유아를 돌볼 때 다른 기질적 특성을 지닌 유아보다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양육과

정을 쉽게 만들며 양육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규칙적 기질에 관해서는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며 편안히 받아들이는 기질의 적응성이나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기질의 활동성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 자신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크므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이러한 기질적 특성을 지닌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특성을 잘 알고 적절한 기대와 이에 맞는 양육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즉, 영유아기에 부모가 기대하는 기질적 특성을 가진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러한 기질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녀의 타고난 기질 특성을 수용하며 그 기질에 적절한 기대를 하고 양육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유아의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건강한 정서조절능력의 형성을 위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유능감과 확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이 중요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정서조절능력은 유아의 기질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므로, 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유아의 선천적인 기질 특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 모든 변인을 어머니 보고에 의존하여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평가자에서 오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편견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관찰법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만을 고려하였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불안, 우울 등 유아의 심리적 특성 및 어머니에 관한 변인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도 고려한 보다 폭넓은 자료수집을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유아기 기질적 특성과 같은 타고난 특성이 환경적 요인보다 영유아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연구 및 환경적 영향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 연구들이 보고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 기질의 하위변인들을 구분하여 개인 혹은 환경적 영향력 정도를 비교 검토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각각의 개별적 영향만을 살펴본 선행 연구가 주를 이룬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판 유아 기질 척도에 근거하여 유아의 기질적 차원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보았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사이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여 유아의 타고난 기질도 정서조절능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양육자인 어머니가 지닌 자녀 양육에 대한 유능감 정도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유아의 정서발달을 촉진하는 부모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4. 2. 27). **영유아 정신건강 '위험' 국가지원 시급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71841432&rccde=900303에서 2014년 4월 3일 인출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연희 (201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수줍음 및 의도적 통제의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4), 215-235.

김경희, 김경회 (1999).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1), 25-38.

김미정, 이경님 (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53-271.

김민정 (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 사회적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 (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2), 101-119. doi:10.5723/kjcs.2013.34.2.101

김보영 (2012). 유아리더십과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미 (2005). **뇌를 통해 본 아동의 정서 :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김인희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정서지능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은 (201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 및 부모-자녀관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윤 (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나, 이경님 (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김현주 (2009).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순 (2009). 어머니의 집착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203-226.

김혜원 (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훈육행동 유형이 유아기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재희 (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혁준 (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문혁준 (2005). 취학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50.

박미리 (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석규, 이은희 (2011).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과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257-278.

박소영 (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예랑 (2017). 어머니가 지각한 영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련 (2014). 부모의 정서적 공감능력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부모 간의 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숙 (2008). 아동의 기질,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윤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기질-양육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를 매개 변인으로. 이화여자대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미경 (2012). 유아의 기질 및 놀이성과 또래갈등해결 전략 간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2), 195-220.

배주희 (2011). 유아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경제 (2012. 2. 9). **올부터 초·중·고교생에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HRJCS8ZIE에서 2014년 4월 5일 인출

서혜린, 이영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서주현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혜진, 신나리 (2014). 유아의 기질과 교사와의 관계가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47-68. doi:10.14698/jkcce.2014.10.3.047

안라리 (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은진 (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경, 민경환 (2003).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 이해의 발달: 정서 원인과 정서 조절에 대한 이해. **심리과학**, **12**(1), 13-29.
유지현, 이경님 (2017).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277-303. doi:10.22155/jfece.24.1.277.303
윤서희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하, 서소정 (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이승은, 서현 (2007).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27-144.
이소은 (2011). 기질, 성, 심리적·행동적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5**(3), 409-430.
이예원, 진미경 (2016). 유아의 기질 및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1**(1), 23-46.
이윤진 (2007).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연 (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5), 35-48.
이화선 (201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정경화 (2013). 어머니 대모애착 및 양육효능감과 영아와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애착 및 기질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보라 (2017).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정서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점옥 (2009).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미숙 (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부월 (20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133-157.

채경진, 유연옥 (2015).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9-34.

최빛나 (2013). 부모의 상위정서철학, 아동의 기질 및 정서조절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숙 (2013). 부모의 양육신념과 유아의 정서조절 행동.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4), 131-151.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영, 김미애 (2010). 유아기질과 부모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19-137.

최형성 (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9-328.

최형성 (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4**(11), 79-89.

홍계옥, 이상덕 (2009). 유아의 기질과 정서지능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주연구**, **18**(2), 180-198.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729-735. doi:10.1037//0012-1649.25.5.729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rch: Conceptu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6.1173

Berry, W. D., & Feldman, S. (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2), 317-333. doi:10.1111/j.1467-8624.2004.00673.x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507-1518. doi:10.1111/j.1467-8624.1986.tb00475.x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5), 715-728. doi:10.1111/j.1469-7610.1993.

tb01066.x

Dunn, J., & Brown, J. (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Fettig, N. B. (2015).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Predicting social competenc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USA.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2), 516-531. doi:10.1111/j.1467-8624.1993.tb02925.x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doi:10.1037//0012-1649.25.3.373

Planalp, E. M., Van Hulle, C. A., & Goldsmith, H. H. (2019). Parenting in context: Marital adjustment, parent affect, and child temperament in complex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3*(5), 532-541. doi:10.1037/fam0000511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doi:10.1111/j.1467-8624.1991.tb01580.x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Oxford, England: Brunner/Mazel.

논 문 투 고 : 19.08.15
수정원고접수 : 19.09.15
최종게재결정 : 19.10.13